

복이 있나니

- * 날짜 : 10월 12일
- * 찬송 : 216장
- * 기도 : 구역원 중에서
- * 말씀 : 누가복음 6: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만 모여든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다. 따라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있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방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인간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셨다.

(질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난한 심령은 자기 자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그것은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이기 때문이다. 그는 각하라 불릴 정도로 지닌 것이 많은 상류층 사람이었다. 지닌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이미 다 누렸다’는 의미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요한 자는 이 땅에서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가?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준다.

(질문) 이 땅에서 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받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 한자 ‘복(福)’을 풀어 보면, 보일 시(示) 한 일(一) 입 구(口) 밭 전(田)이 된다. 한자의 입구(口)는 언제나 사람인(人)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한자 복(福)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거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복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재물이나 출세의 밭을 일구었는지를 과시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밭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 온 밭이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다. 그 밭은 머지않아 큰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밭은 무엇인가?

* 찬송: 218장

* 합심기도

1.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 온 밭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건져 올려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2.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3. 2025년 구역식구들이 서로 밀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예배가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4.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작성: 이성실)